

책, 그가 사랑했던, 그 속에 숨고 싶은

책과 독서에 대한 짧은 이야기

박청호 | 소설가

M은 실업자가 된 후 이상한 사랑에 빠졌다. 아내와 아들이 있는 그가 사랑에 빠졌다면 그건 분명 불륜이다. 그런데 단순히 불륜이기엔 그들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M의 불륜 상대는 당연히 여자다. 하지만 과연 그가 여자와 사랑에 빠졌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M이 실업자다 보니 아내가 직장에 나가게 됐고, 그가 하는 일이란 늘어지게 자다가 오후에 일어나 놀이방에 있는 아이를 찾아오거나 가끔 저녁밥을 짓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인터넷에 재미를 붙여 우연히 사람찾기 사이트에서 옛날에 알던(그야말로 그냥 알기만 하던) 여자를 만난 것이다. 그래서 운명적인 불륜이 시작됐는데 아뿔싸, 그들의 사랑은 질투에서 시작됐다.

“야, 너 이 책 읽었니? 너 총각 때부터 책 좋아했잖아.”

옛날 여자 S가 대뜸 책 얘기를 꺼낸 것이 화근이었다.

결혼하고 직장 다니다 보니 알량한 소설 한 권 읽지 못하던 그였다. 그래도 한때는 문학청년이었는데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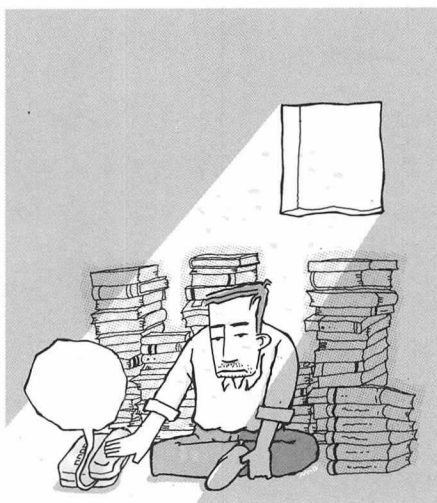
“어쩔 소설을 이따위로 쓴다니? 웬 아줌마가 뭘 안다고 메이저리그에 대해 썼는데 처음엔 남자들의 성장소설로 시작하더니 웬걸 나중에 기업소설이 되더라고. 그런데도 줄줄이 칭찬 일색 주레비평이니... 개네들은 알라던 독자 서평도 안 보니?”

별 대꾸가 없는 그를 향해 S는 마구 떠들어댔다.

“아 글썽 얼마 전에 <동정 있는 세상>이란 걸 읽었는데 난 또 비정한 세상살이에 대한 리얼한 보고서쯤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걸 자기 총각딱지 때는 얘기더라고. 내 참. 그래도 좀 웃기고 재밌더라. 근데 넌 총각딱지 언제 뺐니?”

사실 그 질문은 M이 S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다. 너 아직 처녀니? 사실 M이 S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추근대자 나 처녀야, 하고 발끈했던 그녀였다. 그로부터 8년째 아직 미혼인 그녀가 아직도 처녀지로 남아 있는지 궁금한 건 당연지사였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런 주제는 고상한 그녀의 취미와는 결코 어울리지 않았으므로.

“야, 너도 그런 축에 끼니? 왜 읽지도 않고면서 폼나는 책만 잔뜩 꽂아놓은 애들 말야. 옛날엔 세계명작이나 제3세대 한국문학 이런 거였는데 요즘엔 프로이트, 전집, 도스토예프스키, 니체, 릴케, 카뮈전집 뭐 여기에다 <한길그레이트북스> <시공디스커버리총서> <문지스펙트럼> <창해ABC북> <책세상·우리시대> 등 기획시리즈도 세트로 맞춰놓더라고. 사실 <한길그레이트북스> 나도 몇 권 있어. 진짜 죽이잖아. 인문서들 완전히 다 새로 냈으면 좋겠어. 야, 요즘엔 애들이 약아서, 아니 좋게 말해 유행감각이 빨라 푸코, 들뢰즈, 라캉, 보드리야르 뭐 이런 포스트한 사람들만 읽는다며? 물론 나야 이미 뺐지만 애들이 그런 거 읽으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면 뒤 좀 아냐?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감각(아니, 사고 체계나 문화 등)이 다른데.”

M은 정말 기가 죽었다. 사실 함께 PC 통신 독서토론회를 이끌 때도 닥치는 대로 죽어라고 책을 읽었고, M만 아니라 멤버들 사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그녀였다. 비록 남자라는 알량한 이유로 시삽을 M이 맡고 있었지만 그것은 순전히 권력욕심은 지금도 없는 그녀의 남자 열 배쯤 되는 배포 때문이었다. 책 욕심 많은 사람치고 권력이나 명예 따위에 조금도 관심 없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S는 우디 앨런의 책 제목처럼 늘 세상을 비웃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쓰레기 같은 이 세상.

“요즘도 그렇게 책을 많이 읽니?”

그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자.

“아니, 요샌 CD에 미쳐서 베토벤 하면 지휘자별로, 연주자나 악단별로, 연주시기별로, 레코드사별로 몽땅 다 컬렉팅해.”

“와, 돈 많이 들겠다.”

“야, 내가 너 같은 실업자하고 같니? 요즘엔 학원 강사는 부업이고 고액과외가 주업이야. 좀 슬프지.”

“그래도 맘껏 책 보고 음악 듣고 죽인다.”

“네 시간 자고 12시간 일하는 대가야. 그게 싫으면 너도 누구처럼 이혼하고 돈 많은 사장 아줌마한테 새 장가 들어.”

젠장. M은 오기가 생겼다. 그래서 S와의 첫 통화 이후 책을 있는 대로 사 모았다. 그리고 틈틈이 읽느라고 읽었다. 특히 S가 즐기는 인문 교양서를 집중공략했다. 그가 진진 흥미로운 책은 《나무의 신화》와 《냄새, 그 은밀한 유혹》이었다. 형이상학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인간과 가까운 미시적 주제를 정말이지 훌륭하게 펼쳐놓았다. M은 반격을 꿈꾸며 전화를 걸었다. 냄새는 기억과 욕망의 감각이다, 나무는 우주의 축이다, 따위를 외우기까지 하면서.

“이봐, 기억나. 우리가 문학병이 걸렸을 때 읽었던 책. 왜 있잖아. 레

이먼드 카버. <숫컷> 원작자 말야.”

M은 뜨끔했다. 어찌 있겠는가. 신춘문예를 밥먹듯 떨어지면서도 문학에 미쳐 있던 그 시절.

“웬 추억 타령이야.”

M은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요즘엔 신감각이면 엽기, 고리타분하면 복고잖아. 그럼 당연히 문학은 복고 아니겠어. 아, 《사랑이 오류》도 생각나. 뭐만 하면 넌 이래서 오류야, 하고 놀려댔잖아.”

“너 외롭니?”

“10년 넘게 주욱. 너도 알잖아. 오후에 혼자 집에 있으면 햇살에 방안의 먼지도 다 보여.”

M은 무너지고 말았다. 끝까지 막 나가자던 옛 시절이 이제 추억으로 돌아와 그를 두들겨패는 것이다. 과거로의 회귀. 감상적인 퇴행. 《가을동화》 《가시고기》 《국화꽃향기》. 진한 눈물과 감동. 아 여기에는 무너지고 만다. 그뿐이야. 수많은 사이비-세미-센티멘탈리즘. 기차는 8시에 돌아오고,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내다 팔고, 존재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야, 또 사재기가 문제라며. 어쩔 언론은 같이 짜고 치고선 이제와선 출판사만 공격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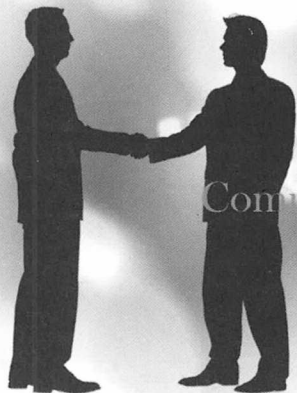
S는 계속 떠들었지만 M은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사방에 책이었다. 지금 죽으면 아들에게 책을 1천5백권쯤 물려줄 수 있다. 그는 중얼거렸다.

“빨리 커서 이 책들 좀 다 먹어치워.”

모든 불륜이 어느 순간 결정타를 맞고 파국을 맞듯 M 역시 추억으로 회귀하지 못한 채 패배하고 말았다. 책, 그가 사랑했던... 아, 책 그 속에 숨고 싶은... ●

다름에서 디자인은 행복을 느낀다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Communication
Design Partner Darum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바로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시각커뮤니케이션 : 브로슈어 / 카탈로그 / 홍보물/패키지 / CI, BI
출판커뮤니케이션 : 잡지 / 사사 / 사내외보 / 표지 · 본문디자인(단행본, 아동, 학습서)
광고커뮤니케이션 : 신문광고 / 잡지광고 / 포스터 / POP / 캘린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5-1(5F) TEL 02_325_6260_1 FAX 02_325_0944
E-mail_darumman@korea.com

dp design partner darum